

此书系中央民族大学国家“十五”“211工程”
建设资助项目

2 고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

김병호
류춘옥 편저



민족출판사

责任编辑：金世日
责任校对：韩海燕
封面设计：宋镐男

新
平
和

ISBN 978-7-105-08492-0



9 787105 084920 >

定价：24.80 元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

김병호 류춘옥 편저

민족출판사

新
民
族

婦
女
學

PDG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朝鲜族人口问题研究: 朝鲜文 / 金炳镐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7.8

ISBN 978-7-105-08492-0

I. 中… II. 金… III. 朝鲜族—民族人口学—研究—中
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C924.2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37301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8月第1版 2007年8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9.625 字数: 300千字

印数: 001-600册 定价: 24.80元

ISBN 978-7-105-08492-0/C · 245(朝3)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PDG

차 례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 (서언을 대신하여)	김병호	1
조선족 사회문제의 현 실태에 대한 사고	류춘옥 김병호	10
새로운 민족환경과 재외 한인	조정남	30
“조선족”의 이동과 정체화: 한·중·일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고찰	권향숙	44
한국 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	권태환 박광성	58
일본의 취학생 및 유학생 수용정책과 중국 조선족	타니가와 유이치로	88
중국 조선족인구의 제로식(0) 증가가 민족 사회 발전에 끼친 부정적 영향	정신철	108
中国朝鲜族与他族通婚对朝鲜族人口增长的影响	郑成宏	117
조선족녀성들의 국제결혼과 조선족 인구의 마이너스증장	황유복	136
중국 조선족 ‘집중촌’ 건설현상과 네트워크 구축	김재기	141
中国朝鲜族教育共同体反思	郑仁甲	175
延边朝鲜族人口问题的特点及 人口问题的社会影响	金钟国	194
不容忽视的延边朝鲜族人口发展问题	梁学敏 卢长和	214

论延边朝鲜族人口负增长所引发的

朝鲜族教育问题	蔡洙一 梁玉今	229
对吉林省朝鲜族人口流动与社会问题的		
民族理论思考	朱在宪	240
黑龙江省朝鲜族人口的变迁及其发展趋势	都永浩	268
鸡西市朝鲜族人口负增长问题探讨	康 文	278
辽宁省朝鲜族人口变化研究	金海燕	291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

(서언을 대신하여)

중앙민족대학 민족이론·민족정책 연구소 김병호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 국제학술회의가 중앙민족대학 민족이론·민족정책 연구소에서 주최하고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 단 위에서 후원하여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노고를 마다하고 멀리에서 오신 한국 고려대학교 조정남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 일본, 미국의 학자 여러분과 김종국 선생님을 비롯한 동북3성 학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다망하신 가운데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공중앙 당학교, 중앙인민방송국, 중국국제방송국, 민족출판사, 중앙민족어문번역센터,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등 단위의 여러 학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며 중국 조선족의 민족 발전에 한 페이지를 남겨놓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학술회의의 주제와 취지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이며 부주제로 하나는 “중국 조선족인구 마이너스증장과 그 해결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조선족 인구유동과 사회문제 및 해결방안”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현재 중국 조선족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다. 조선족사회에서 인구유동과 사회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지는 이미 15년이 되었다. 나는 1989년과 1990년에 중국과 한국 학술지에 이에 관한 논문 몇편을 발표하였다. 조선족사회에서 조선족인구 마이너스증장문제에 대하여 중시를 돌리기 시작한지도 몇 년이 되었다. 2002년에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자치주 관련 부문과 일부 학자들이 참석한 “연변 조선족 인구문제” 연구토론회가 있었지만 중국 조선족 주요 거주지역의 학자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한 전국적인 학술대회는 아직까지 개최된 적은 없으며 외국학자들이 참석한 국제학술회의는 더욱 없다. 그리고 위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학자들이 제기한 일부 견해, 관점들은 실제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인용, 재인용하여 위의 문제를 오도(誤導)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민족대학교 민족이론·민족정책 연구소에서는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을 대주제로 하고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 문제를 부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각 지역의 인구증장상황, 인구유동 상황과 제반 사회문제 상황을 통보하고 연구결과를 교류하고 해결 대책과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오도되는 관점들을 해명하여 조선족 인구문제에 대한 그 엄중성을 참답게 인식하고

그 객관성을 냉정하게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태도를 취하자는 것이다.

2. 중국 조선족인구의 마이너스 증장에 관하여

조선족인구문제 연구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유의하기 바란다.

첫째, 중국의 조선족은 천입(迁入)민족이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인이 중국에 천입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한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전에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이 약 170여만(일설은 200만) 되었는데 광복 후 몇십만 명(일설은 100만 명)이 조선으로 되돌아가고 중국에 남아있는 조선족은 100여만 명 되었다. 후에 50여 년을 거쳐 인구가 200만이 되었다.(192만 명)

둘째, 중국의 조선족은 천입민족이므로 과경민족인 것은 당연하다. 과경민족이므로 인구의 경외유동이 가능하고 편리한 것이다. 몇 년간의 경외(조선)로의 유동은 1945년 8월 15일과 관련된다. 1990~2000년간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조선족 절대수가 줄어든 것도 경외(한국 등 나라)로의 유동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셋째, 중국의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50년 이래 중국 56개 민족 중에서 인구증장이 제일 낮은 민족이다. 중국의 다섯 차례 인구 보편조사의 통계를 보면 조선족인구 총수는 1953년에 1,120,405명, 1964년에 1,339,569명, 1982년에 1,765,204명, 1990년에 1,923,361명, 2000년에 1,923,842명(발표된 이론상의 수자)이다. 인구성장률을 보면, 1982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전국은 71.42%, 소수민족은 89.28%, 조선족은 57.48% 증장되

었다. 1982년에는 1964년에 비하여 전국은 71.42%, 소수민족은 68.40%, 조선족은 30.75% 증장되었다. 1990년에는 1982년에 비하여 전국은 12.45%, 소수민족은 35.5%, 조선족은 8.73% 증장되었다. 2000년은 1990년에 비하여 전국은 9.92%, 소수민족은 14.4%, 조선족은 0.02%(발표된 수자의 이론상 계산) 증장되었다.

1990~2000년의 조선족 인구증장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통계 수치에 발표된 증가된 481명 외에 조선족 현역군인이 5,854명 있다. 그리고 1990년 2000년까지 한국 등 외국으로 시집갔거나 이민간 조선족(특히 여성들)이 6만~7만은 될 것이라고 하므로 실제 2000년도 조선족인구는 200만에 달한 셈이다. 그러므로 실제 인구증장률은 3.29% 되는 것이다.

넷째, 조선족은 중국 56개 민족 중에서 인구 마이너스증장을 제일 먼저 시작한 민족이다. 총체적으로 조선족인구 증장이 느리고 인구 마이너스증장이 지속되었다. 전국 조선족인구는 2000년부터 마이너스증장에 들어섰다.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 기간에 11,508명이 출생하고 11,536명이 사망하여 28명이 감소되었다.

마이너스증장과 0출산은 다른 것이다. 지금 조선족 학자중에 2019년에 조선족 0출산이 현실로 될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 따르면 1999년과 1989년을 비교할 때 연변조선족 영아 출산 수가 1/4을 웃도는 수로 3,800명으로 되었다. 이런 상태로 계산하면 중국 조선족영아 출산은 2009년에 2,000명, 2019년에 500명, 2029년에 31명, 그리고 2049년에 0으로 될 것이다. 여기에 조선족여성들이 국외로 시집가는 숫자를 계산한다면 조선족영아 출산수가 20년 내에(즉 2019) 0으로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추산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영아출산 계산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2000년도 조선족영아 출산수는 11,508명, 1999년도 조선족영아 출산수는 9,722명이며, 1988년도 조선족영아 출산수는 10,225명

이며, 1997년도 조선족영아 출산수는 9,987명이며, 1996년 조선족영아 출산수는 10,684명이다. 근 5년간 조선족영아의 출산수는 년 평균 1만 명인데, 이는 1981~1990년 10년간 조선족영아 평균 출산수 33,000여 명의 30% 되는 것이다. 이 5년간 한국으로 시집간 조선족여성이 약 5만 명(1993~2000년 6만 명) 되는 상황에서 매년 영아 출산수는 1만여 명이 되었다.

금후 10년은 중국 조선족의 결혼 적령기 청년이 많은 시기이다. 1981~1990년 출생을 보면 10세 28,503명, 19세 27,106명이며 년 평균 34,000여 명(최소 3만 명, 최고 3만 7천 명)이다. 그러므로 향후 20년에 조선족영아 출산이 0으로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 조선족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동화되거나 소실될 민족이 아니다. 연변의 한 연구자가 몇 년 전에 조선족이 2049년에 50만 명, 2090년에 19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추측이다.

연변의 조선족인구는 1996년부터 마이너스증장기에 들어섰고 전국 조선족인구는 2000년부터 마이너스증장기에 들어섰다. 금후 출생 만명, 사망 만 이천 명으로 계산하면 매년의 인구감소는 2천 명 정도일 것이다. 많이 계산하여 매년 5천 명이 감소된다 해도 20년 이라야 10만 명 정도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인구의 대량의 국외로의 기계적 유동이 없을 경우와 자연재해, 질병, 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극감이 없을 경우) 2019년 조선족인구는 180만~170만 명으로 보장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조선족인구의 마이너스증장의 시작과 영아 출산의 극감의 엄중성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틀린 관점으로 오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현실을 정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조선족 사회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개혁개방 이래, 특히 근 10년래 조선족인구 증장의 느림과 2000년도부터 시작되는 인구의 마이너스증장, 조선족인구의 대량 유동, 특히는 국외로의 유동은 조선족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조선족마을의 조선족비율 감소문제. 조선족인구의 대량 유동으로 인하여 조선족마을수가 줄어들고 있다. 흑룡강성 연수현의 조선족행정촌 14개가 지금은 6개로 합병되었다. 58%가 줄어든 셈이다. 그리고 조선족마을의 조선족 비율도 하강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는 방책으로 조선족 중심촌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지리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조선족인구가 많은 촌을 중심촌으로 하여 주변의 인구유동이 많은 조선족촌들을 합병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족 농촌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고 조선족의 교육발전과 문화보존에도 유리한 것이다.

둘째, 조선족학교 교육의 위축문제. 조선족인구의 대량 유동 및 영아 출생률의 하강으로 인하여 조선족학생 래원이 줄어들고 학교가 폐쇄되거나 합병되어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조선족 학교 교육의 위기를 인식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작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다.

일부 조선족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감소된 학교수만 나열하여 엄중성을 과시한다. 예를 들면 흑룡강성 조선족학교는 1990년의 382개소에서 1997년의 51개소로 줄어들어 학교 수가 80%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선족 소학생수는 1985년부터 1997년까지 14.2% 감소되었을 뿐이다. 또 흑룡강성 조선족중학교는 1990년의 77개소에서 1997년의 15개소로 줄어들어 학교수가

79.3% 감소된 것을 나열한다. 그러나 조선족 중학생수는 1985년부터 1997년까지 22.5% 감소되었을 뿐이다. 만약 학교수, 학생수 감소를 함께 감안한다고 할 때 이 문제의 필연성과 엄중성을 함께 느끼게 되므로 전 중국의 학교수, 학생수 감소의 필연적 추세에서 조선족이 좀 더 문제의 엄중성을 나타냈다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등 방책은 조선족학교의 교수질을 높여 줄어든 숫자의 조선족학생들 다수를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다. 또 기숙제의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라도 꾸려서 조선족(학령)아동들이 모두 조선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조선족이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문제. 조선족인구의 대량 유동에는 조선족처녀들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한다. 도시로 진출한 처녀들은 일부가 한족과 사귀어 결혼하게 된다. 농촌에 남아 있는 총각들은 일부가 대상을 찾지 못하여 노총각이 되어 있거나 일부는 한족처녀와 결혼하게 된다. 민족 통혼은 다민족국가에서 일정한 필연성을 띠며 타민족과의 통혼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등방책은 조선족 중심촌건설을 잘하여 조선족 처녀 총각들이 농촌에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족 중심촌의 번영은 외지로 일하러 간 처녀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조선족인구의 마이너스증장문제와 그 대책

조선족인구 증장에서 연변지역은 1996년도부터 마이너스증장에 들어섰으며 이미 8년째 되고 있으며 전 중국의 조선족인구는

2000년부터 마이너스증장이 시작되어 3년째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실제 조사를 거쳐 자료와 숫자를 장악하여야 한다. 전국제 5차 인구보편조사의 일부 숫자들의 신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다. 착실한 연구를 위하여 확실한 실제 조사가 필요하며 이 3년간의 흑룡강성, 요녕성의 실제 변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숫자를 장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선족인구 연구에서는 추측, 추리 등을 절대 반대하여야 하며 실체를 기초로 한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고 현실에 기초한 연구 결론과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조선족 인구문제 연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선족학자들중에 전공이 인구학인 학자는 거의 없다. 조선족 연구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학자도 그리 많지 않다. 많은 학자들은 민족의 양심과 책임에서 이 문제에 주의를 돌리고 열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상책은 중앙민족대학, 연변대학교, 혹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산하에 조선족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연구역량을 조합하여 깊은 연구를 하는 것이다. 조선족인구 마이너스증장에 대한 투철한 연구가 있어야만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조선족 인구문제 대책 민간단체를 설립하여야 한다. 조선족의 인구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만 의거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조선족 전체가 관심을 돌려야 하고 방법을 대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과 병행되게 조선족 민간에서 “조선족인구증장기금회”, “조선족인구문제연구회” 등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조선족인구 마이너스증장 해결과 관련되는 일들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연변과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의 정부기관에서 조선족인구 마이너스증장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상응되는 정책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토론하고 있다. 이를 지방법률로 될 수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성정부 차원에서 조선족 인구문제 해결 방책에 관한 정책, 법규, 지방법률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유관 부문, 그리고 온 사회에서 조선족인구 마이너스증장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제 정책,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의 조선족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기타 소수민족이 겪게 될 문제로 될 것이므로 조선족 한 개 민족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0~2000년 10년간 인구증장이 1%도 안 되는 만주족, 4%밖에 안되는 좡족, 10% 정도 되는 민족은 6개 민족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면 중앙정부 혹은 유관 부문의 중시를 일으킬 수 있다.

여섯째, 조선족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족도 인구가 증장해야 민족이 흥성한다. 조선족경제가 살아야 민족이 발전한다. 조선족마을을 지켜야 조선족문화를 지킬 수 있다. 조선족의 민족정신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조선족에 관한 어느 회의 통지에는 “녹색경제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썼는데 저자는 “조선족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마련한 마지막 진지이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 민족의 양심과 책임성, 의무성에서 조선족인구 마이너스증장문제를 정시하기 바란다.

조선족 사회문제의 현 실태에 대한 사고

중앙민족대학 류춘옥 김병호

I. 중국 조선족 사회문제의 실태

1. 조선족의 인구문제

조선족의 인구문제는 인구유동, 인구 자연증장률, 인구 연령 구조 등이다.

근 100년 기간 중국의 조선족은 세 차례 대 유동이 있었다. 1910~1945년 기간에 140만 명 조선인이 중국으로 천입(迁入)한것, 1945~1953년에 약 100만명의 중국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조선반도로 되돌아간 것, 1985~2006년에 25만여 명 조선족이 한국 등 외국으로 유동하고 1980~2006년에 50만~55만여 명이 중국 국내의 연해도시, 관광도시 등 지역으로 유동한 것이다. 제3차 대 유동 시기에 한국인이 중국으로 유동(관광객 제외, 사업 등으로 중국에 입국한 자)한 인수는 60만~75만여 명이 된다. 이 대 유동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 차례 조선족(조선인, 한국인)의 인구 유동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10~1945년	중국 ← 조선반도	140만 명
1945~1953년	중국 → 조선반도	100만 명
1985~2006년	중국 → 한국	25만여 명
	중국 ← 한국	60만~75만여 명
(1980~2006년	중국 동북3성 → 관내 유동	약 50만 명)

중국 조선족의 전통 집거지는 동북3성이다.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의 조선족 인구는 개방 이전에는 98% 이상을 점하였고 2000년도의 공식적 통계에는 92% 이상을 점하였다.(도표 1 참조)

<도표1> 조선족 인구분포 지역비율 통계(단위: 명, %)

	총인구	길림성	(길림성 중의 연변)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골	기타 지역
1953년	1,120,405	756,026 (67.477)	551,025 (49.18)	231,510 (20.663)	132,869 (11.859)		
1964년	1,339,569	866,627 (62.54)	623,136 (46.517)	307,591 (22.961)	146,513 (10.937)	18,838 (1.406)	
1982년	1,765,204	1,104,074 (62.54)	754,567 (42.75)	431,644 (24.45)	198,252 (24.45)	17,580 (0.995)	13,654 (0.785)
1990년	1,923,361	1,181,964 (61.45)	821,479 (42.71)	452,398 (23.52)	230,378 (11.981)	22,641 (1.177)	33,216 (1.726)
2000년	1,923,842	1,145,688 (59.55)	842,135 (43.77)	388,458 (20.19)	241,052 (12.53)	21,859 (1.136)	126,785 (6.590)

개혁개방 이래, 특히 최근 10여 년간 중국에는 조선족인구의 유동으로 인하여 조선족의 새로운 집거지가 형성되고 있다. 즉 대련시, 심양시, 영구시, 천진시, 북경시, 위해시, 연대시, 청도시 등으로 형성된 환발해만(環渤海灣) 조선족 거주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1992년도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지역에 6만~8만